

'95 제2검정소 우수 종돈장상 수상 활천 농장

취재 : 이병석



활천농장 사무실내 모습, 각종 우수종돈 페넌트가 걸려 있는 것이 보인다. 원내는 이대호사장의 모습

지난 3월 5일 제2검정소에서 '95년 종돈능력검정 우수농장상을 수상한 활천농장(대표: 이대호, 경남 하동군 북천면 서활리 682번지)은 '83년 종돈업을 개시하여 본회 제 1, 2검정소에 검정돈을 출품해 123두의 최우수 검정돈을 배출한 종돈장으로 주위에 반경 20km 이내에 타 농장이 없는 청정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전화: 0595-82-9811)

제1, 2검정소를 통합하여 최우수종돈장 3회, 우수종돈장 7회의 우수한 성적을 올린 활천농장은 순수 순종분양을 위한 랜드레이스 모돈 520두 규모로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유한 종돈장으로 100% 인공수정을 하고 있으며, 오제스키, PRRS 없는 청정돈을 분양하고, 최근까지 본회 1, 2검정소에 최다출품, 최우수 검정돈을 배출하였다.

현재 농장시설은 전체가 슬러리 시스템으로 분뇨 25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외부탱크와 '94년

도에 교반기를 이용한 발효장을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자체 분뇨차를 구입해 목장이나 밭 등에 계약을 하여 액비로 살포해 주고 있다.

활천농장은 이대호 사장과, 전병무 상무(종돈분양담당), 이원형 농장장을 포함해 전체 11명이 한마음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후대능력이 좋은 돼지를 생산하여 비육돈 농장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오제스키나 PRRS는 물론 PED나 TGE 등과 같은 질병은 한번도 걸리지 않아

지난 '89년에 현 위치인 경남 하동에 20여 억 원을 투자하여 전체를 자동화 시설로 설계하여 관리의 효율을 증대시켰으며, 무엇보다도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매일 소독을 하는 등 질병차단에 최선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결과 오제스키나 PRRS는 물론 PED나 TGE 등과 같은 질병에 한번도 걸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활천농장은 회원제를 이용, 종돈판매에 앞서 고객관리에 더욱 비중을 두고 A/S를 철저히 해주고 있으며, 현재 국내의 경우 모돈 1두당 연간 이유두수(PSY)를 기준으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종돈개량목표가 사료효율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돈 1두당 정육량으로 성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활천농장내 사육되어지는 종돈들은 바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사료효율과 모돈 1두당 정육량 증대를 위한 개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일반 비육농장이 잘 되어야지 종돈장도 잘 된다고 말하는 이원형 농장장은 우수한 종돈을 생산해서 농장에 공급하므로 서로가 공존공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굴지의 전문종돈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현재의 규모에서 더욱 늘려 모돈 4,000두 규모의 GP농장 7개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는 질병과 위생의 수직적인 감염을 최대로 줄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무창돈사로 건설하여 SEW방식으로 전문화를 더한다는 계획도 밝힌다.